



5월의 기도

1.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2.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금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께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며, 그분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지지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정이 무너진 곳에는 회복을, 상처받은 마음에는 치유를 허락하시고, 건강한 가정 문화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3.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세계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각 나라가 협력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공급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공평과 정의를 바탕으로 경제를 세워가며, 가난과 불평등이 줄어드는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4. 우리나라 정치를 진실과 정의 위에 세우시고 위정자들이 권력이나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정적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사랑과 행복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9)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참 행복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의 본질적 요소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체험하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본능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친구와 스승을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도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 친구라는 조건, 내가 배우고 가르쳤다는 조건 하에서 생기기 때문에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성과의 만남에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이라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랑은 육체적·정신적 조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조화되어야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부부간의 사랑이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사랑이 이러한 부족한 사랑을 보완해 주게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바꿔 줄까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만이 완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 보는 DCEM 2007년 해외성회 <2007 전일본 지저스 페스티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던 '조용기 목사 일본선교 30주년 2007 전일본 예수축제'는 당시 일본 열도를 뒤 흔든 성회였다. 성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은 하늘 향해 손을 들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수의 사랑과 구원에 감격했다. 그간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해 힘쓰며 기도한 조용기 목사와 일본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었다.

지구를 돌며 복음을 전한 조용기 목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복음을 전했다. 조 목사는 라디오와 TV방송을 통해서, 교회개척과 신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해마다 개최했



던 '지저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일본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구원하고자 혼신의 힘을 쏟았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성취하기 위해 수십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해 힘써 달려온 조용기 목사의 일본선교는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크고 지고한지를 보여줬다.

DCEM이 주최하고 NRA, 관동선교협력회, 제일한국기독교선교사연합회(KMA), (사)순복음실업선교연합회가 후원한 가운데 2007년 7월 16일 개최된 '2007 전일본 지저스 페스티벌'은 일본 전역에서 1백 교회 7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일본 치바현에 소재한 마쿠하리 멧세 이벤트홀에서 열린 동 성회는 관중석은 물론 중앙홀에 이르기까지 성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성도들의 발길로 북새통을 이뤘다. 성회가 시작되자 7천여 명의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일본선교 (당시) 30주년을 축하하며 동 성회를 통해 일본 땅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1996년 동경 에도가와에서 '지저스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열린 후 13회째 맞이했던 '2007 전일본 지저스 페스티벌'은 DCEM을 중심으로 일본의 주요 교단과 교회가 하나로 응집하여 일본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명실상부한 일본 최대 개신교 집회다. 특히 2007년에 개최된 페스티벌은 순복음동경교회를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의 제자 교회들과 일본인 현지교회 그리고 선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 성회였다. 성회에 동참한 교회들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각각 대형버스를 대절해 성도들의 참석을 도왔고, 거리가 먼 오사카와 나고야 지역 성도들은 새벽녘에 일어나 8시간씩 버스를 타고 성회 장소로 달려오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1977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복음화의 기수로 천만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자는 목표로 지속되어온 조용기 목사의 일본선교는 일본의 교회 성장은 물론, 교단을 넘어 목회자들간의 연합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전세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일본선교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들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신앙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달프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후손도 평생에 땅을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귀의 꾀를 받아 따먹어서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낙제하도록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하면 마귀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터인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를 끝까지 밑에서 격려하지 못하고 다 달아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데 가실 지라도 나는 안 달아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 일 먼저 달아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시험에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29, 31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땅이 땅에 떨어지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모두들 잠을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나 동료들이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잠을 자면 마귀의 시험에 듭니다. 마귀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기도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E.M.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가뭄 끝에 넉넉히 쏟아지는 단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물을 나르고 보존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2.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살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밥을 먹을 식사를 주니 감사합니다.”하고 감사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를 만났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그때 그때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가 저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온갖 일, 모든 것에 걸쳐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인생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더 넘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당시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펌프 물을 퍼 올려야 했습니다. 당시 신학교 논 쪽에 펌프장이 한 곳이 있었는데 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느냐? 한 바가지의 물을 미리 부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물을 붓는데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중물을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나중에 툭툭 물이 쏟아집니다. 감사는 이 마중물과 같습니다. 처음엔 감사의 말이 잘 안 나오지만, 감사의 마중물을 실천하면 넘치는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건강한 몸을 갖고 잠에서 일어나는 것에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매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시편 9편 1절로 3절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라”(마 5:17)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희어졌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장엄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 보아야 최소한 700~1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을 통해서 똑똑히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장막 집을 벗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 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영혼은 곧장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부활의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선상에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곧 유대인에게 팔리고 로마 사람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직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선상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갈보리 십자가를 걸머지셨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십자가를 걸머질 수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걸머질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선상에서 주님을 경외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것과 또한 모든 선지자의 예언들도 예

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요, 헛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 예시해 놓았고 예언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 예언이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예언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품에 안아서 완성 시켰습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